

본 전시의 고화질 이미지는 GNC Media 웹하드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https://only.webhard.co.kr/> | Guest ID : gncmedia | PW : 12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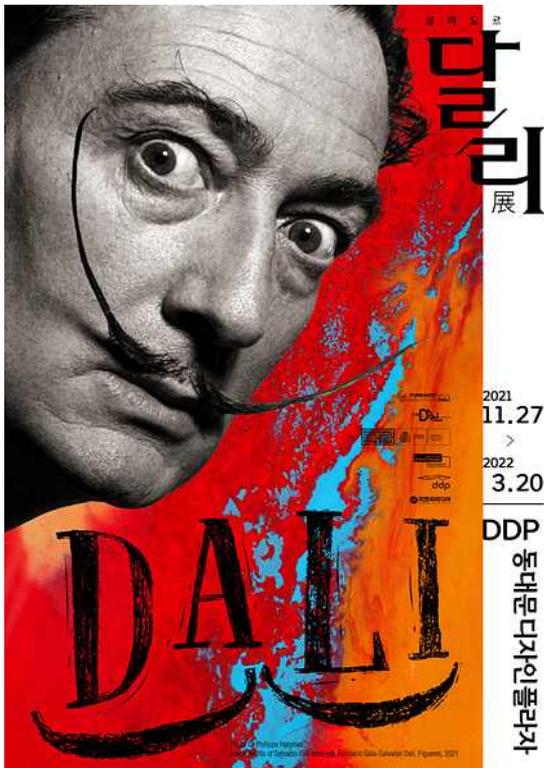
이 미 지 매 수	○	홍보 담당	안현웅 과장	010-9978-7633	awoong@gncmedia.com
	15				

<살바도르 달리: Imagination & Reality>

20세기를 대표하는 영원한 천재 예술가

국내 최대 규모 "살바도르 달리 회고전"

전시 기간 연장 확정



지난 2021년 11월 개막한 <살바도르 달리전>이 오는 2022년 4월 3일 (일)까지 2주 전시 연장을 확정하였다.

살바도르 달리의 국내 첫 대규모 원화 전으로, 전 생애에 걸친 회화 및 삽화, 설치작품, 영상, 상업광고 등의 걸작 총 140여 점의 작품을 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다.

살바도르 달리: Imagination & Reality

이번 전시는 스페인 살바도르 달리 재단과 7년간의 공식 협업을 통해 기획하였으며, 세계 3대 달리 미술관인 스페인 피게레스 달리 미술관(Fundació Gala-Salvador Dalí), 미국 플로리다 살바도르 달리 미술관(Salvador Dali Museum), 스페인 마드리드 레이나 소피아 국립미술관(Museo Nacional Centro de Arte Reina Sofia)의 소장품들로 구성되어 있다.

코로나 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작년 하반기에서 올 상반기를 통틀어 기간 대비 최다 관람객을 동원하고 있는 전시로, 예술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핫플레이스로 자리매김 중이다.

살바도르 달리를 애호하는 많은 대중들에게 충분한 관람 기회를 제공하고자 스페인 살바도르 달리 재단과 전시 연장에 대한 긴급 협의를 진행하였다. 앞서 소개한 3개의 미술관으로부터 모두의 최종 승인을 얻어, 2주 간 연장 운영하기로 확정하였다.

전시 연장을 기념하여 각 예매처 별로 특별 할인 프로모션도 예정되어 있다. 코로나 19 확산으로 전시를 아직 관람하지 못했던 많은 이들에게 남은 기간 더욱 소중한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살바도르 달리전> 은 DDP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4월 3일까지 휴관일 없이 진행된다.

- 스페인 살바도르 달리 재단 공식 연합 기획전
- '세계 3대 달리 미술관'에서 국내 첫 선보이는 원화 작품
- 초현실주의 대가 살바도르 달리의 시기별 대표 작품 소개
- 유화, 삽화, 설치작품, 영상, 사진 등 총 140 여 점의 다양한 볼거리

■ 전시 정보

전시기간	2021년 11월 27일 (토) - 2022년 4월 3일 (일)	
관람시간	오전 10시 - 오후 8시 (입장 마감: 오후 7시 00분) *상황에 따라 입장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장소	동대문디자인플라자 DDP 배움터 디자인전시관 (B2)	
주최/주관	Fundació Gala-Salvador Dalí (재)서울디자인재단DDP, (주)지엔씨미디어	
입장권	<p>성인(만 19-64세): 20,000원 청소년(만 13-18세): 15,000원 어린이(만 7-12세): 13,000원 특별권: 8,000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장 대표소에서 구매 가능 • 학생증, 복지카드 등 할인 대상 증빙자료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취학 아동(만 4-6세) - 만 65세 이상 - 장애인 4-6급 - 국가유공자 본인 <p>무료권: 48개월 미만, 장애인 1-3급(동반 1인 포함) •1인 1회 한정</p>	
문의 및 예매	티켓 예매처 전시/단체 문의 Website Instagram	인터파크, 네이버, 29CM, 야놀자 gnc@gncmedia.com, 02)325-1077(8) www.gncmedia.com @dali_ddp

■ 시설공통 방역수칙

<살바도르 달리: Imagination and Reality>는 코로나 19 감염 예방을 위해 정부 방역 지침을 따른다.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방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쾌적한 전시장 시설 관리와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감염 예방수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대응한다.

-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지속 착용, 손소독제 비치
- 주 출입구에서 체온 측정
- 전시장 내 제한 인원 수용
- 전시장 주변 안전거리 유지 (관람객 간 1~2m 간격 유지)
- 일 1회 이상 소독 (공용물품, 손잡이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 일 3회 이상 환기 (출입문 상시 개방 또는 환기 설비 가동)

■ 전시 개요

살바도르 달리 재단(Fundació Gala-Salvador Dalí),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주)지엔씨미디어(GNC Media)가 함께 <살바도르 달리전: Imagination and Reality>을 개최한다.

2022년 4월 3일까지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배움터 디자인전시관에서 진행되는 이번 회고전은 스페인 초현실주의 대가 '살바도르 달리 Salvador Dalí'의 작품세계를 10개의 섹션으로 나누어 연대기별로 소개한다. 전 생애를 걸친 유화 및 삽화, 대형 설치작품, 영화와 애니메이션, 사진 등의 걸작 140여 점을 선보이며 다방면으로 천재적이었던 살바도르 달리의 예술 여정을 조명한다.

살바도르 달리 재단과의 공식 협업을 통해서 기획된 이번 전시는 스페인 피게레스에 위치한 달리 미술관(Fundació Gala-Salvador Dalí)을 중심으로, 미국 플로리다의 살바도르 달리 미술관(Salvador Dalí Museum), 스페인 마드리드의 레이나 소피아 국립미술관(Museo Nacional Centro de Arte Reina Sofia) 소장품으로 구성된다.

전시 티켓은 성인(만 19-64세)은 20,000원, 청소년(만 13-18세)은 15,000원이며, 어린이(7-12세)는 13,000원이다. 온라인 예매처인 인터파크 티켓과 네이버, 29CM, 야놀자 채널을 통해 할인된 가격으로 티켓을 구매할 수 있다.

■ 전시 소개

이번 전시는 살바도르 달리(Salvador Dali)의 국내 첫 대규모 회고전이다. 1910년대 초부터 1980년대까지의 유화와 삽화 시리즈를 선보인다. 유년 시절부터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 작가로 자리매김하기까지의 시기별 작품 특성을 조명하고 영향을 주고받았던 인물과 개인적인 순간들을 함께 소개한다. 총 10개의 섹션을 통해 '예술이 인생을 지배해야 한다'는 달리의 신념을 보여주고, 관객들에게 초현실적인 경험을 선사하고자 한다.

■ 세계 3대 살바도르 달리 미술관

이번 전시는 스페인 피게레스의 달리 미술관이 소장한 다수의 소장품을 중심으로, 플로리다의 달리 미술관, 스페인의 레이나 소피아 국립미술관 소장품으로 구성된다.



스페인 피게레스 달리 미술관 전경사진, 2021

스페인 피게레스 달리 미술관 *Fundació Gala-Salvador Dalí*

살바도르 달리가 태어나고 성장한 고향, 스페인 피게레스에 위치한다. 폐허가 된 극장을 달리가 직접 총괄·기획하여 기념비적으로 탈바꿈시킨 곳이다. 예술적 정열을 쏟아 재탄생시킨 미술관은 벽화와 조각 등 달리의 상징적인 요소들이 묻어나는 곳이며, 지하실에 달리의 무덤이 안치된 장소이기도 하다.

미국 플로리다 달리 미술관 *Salvador Dalí Museum*

플로리다 해안가에 위치한 아름다운 미술관이다. 1942년 살바도르 달리 회고전을 보고 감명받은 모스 부부가 45년 동안 수집한 작품 200여 점을 전시하기 위해 설립했다. 초현실적이고 역동적인 예술관에 영감을 얻은 세계적인 건축가 Yann Weymouth가 설계한 건축물로 더욱 명성을 얻었다.

살바도르 달리: Imagination & Reality

스페인 마드리드 레이나 소피아 국립미술관 *Museo Nacional de Arte Reina Sofia* 스페인을 대표하는 화가 '피카소'와 '살바도르 달리'의 빛나는 주요 걸작들을 소장하고 있는 국립미술관이다. 그 외에도 20세기 초반 미술계를 주도한 화가 '호안 미로'와 '르네 마그리트' 등의 현대미술 작품들을 다수 전시하고 있다.

■ 작가 소개

살바도르 달리(Salvador Dalí, 1904-1989)는 스페인 출신의 화가이다. 달리는 1904년 스페인 카탈루냐의 소도시 피게레스에서 태어났다. 달리가 태어나기 전, 세상을 떠난 형으로 인해 상심한 부모는 달리를 죽은 형의 환생으로 여겼다. 이는 달리에게 정신적인 상처를 안겼고 죄책감과 강박증, 편집증, 정신 분열 증상인 이중성 혹은 다중성을 갖게 했다. 달리는 온전한 자신으로 인정받길 원했으며, 그 열망을 온갖 기행과 일탈로 표출했다. 발작적으로 소리를 지르고 웃기, 개미에 뒤덮인 박쥐를 입에 넣기, 망토와 왕관을 쓰고 왕 행세하기, 염소 똥으로 만든 향수 뿌리기 등 기상천외한 행동으로 시선을 끌었으며, 평생 천재적인 화가로 칭송받으면서도 동시에 기상천외한 괴짜 취급을 받았다.

입체파의 영향을 받은 달리는 벨라스케즈, 라파엘로 등 고전화에 관심을 보였으며,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에 충격을 받아 무의식과 꿈의 세계에 심취하게 된다. 무의식과 본능의 세계를 해방시키고자 한 초현실주의 예술가들과 활발하게 교류하며 달리의 명성은 점차 높아졌다. 세계대전의 폐허 위에서 탄생한 **초현실주의(Surrealism)**는 산업혁명이 초래한 물질주의를 비판하는 예술가들이 뭉쳐 개척한 사조였다.

달리는 이후 초현실주의 그룹과는 다른 독자적인 길을 개척한다. 그는 평생 시달린 불안감과 광기를 독창적인 예술 언어로 표현했다. 대표적으로 의식의 흐름을 그대로 기록하는 '**자동기술법(Automatisme)**'과 어떠한 사물에 강박적으로 집착하거나 응시할 때 나타나는 왜곡을 표현한 '**편집광적 비판(Paranoiac Critic)**' 기법이 있다. 달리는 비이성적인 환각 상태를 객관화하여 사실적으로 재현하고자 했다. 정통적인 회화기법과 정밀한 소묘, 오차 없는 원근법을 이용해 완성한 몽환적이고 기묘한 그림은 사람들을 매혹시켰다. 달리는 "그림이란 비합리적인 상상력에 의해 만들어지는 천연색 사진"이라고 정의하기도 했다. 또한 원자 과학이나 DNA, 가톨릭의 신비성을 추구했던 달리는 히로시마 원자폭탄에 충격을 받아 '**핵-신비주의(Nuclear Mysticism)**' 이론을 발표했으며, 강렬한 화면과 정교한 표현 방식을 위한 실험을 멈추지 않았다.

파리에서의 첫 개인전을 시작으로 유럽을 오가며 왕성한 활동을 펼친 달리는 장르와 매체를 가리지 않고 영화, 사진, 연극, 패션 등 상업적인 분야에서도 활발히 활동했다. 영화 감독인 월트 디즈니, 알프레드 히치콕과도 협업한 달리는 슈퍼스타 대우를 받았다. 로고를

살바도르 달리: Imagination & Real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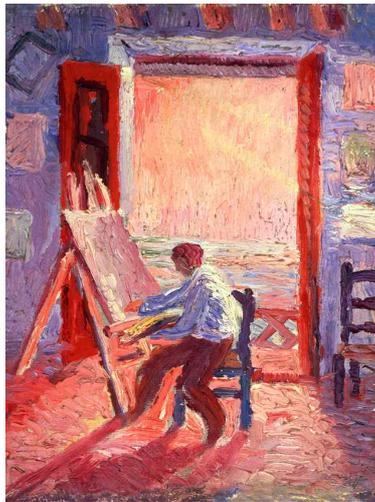
디자인하고, 광고에 얼굴을 내밀며 예술과 상업 경계를 무너트려 팝아트 탄생의 기반을 마련했다. 종잡을 수 없는 기행과 획기적인 이슈를 만들며 화제를 몰고 다녔던 천재 화가 살바도르 달리는 세계적인 스타로, 또한 20세기를 대표하는 초현실주의의 대가로, 오늘날 현대사회 예술문화 전반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우리의 삶 속에 강렬하게 살아 숨 쉬고 있다.

■ 전시 구성

꿈의 세계를 가장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그려낸 화가 '살바도르 달리'의 전 생애를 아우르는 시기별 작품은 총 10개의 주제에 따라 구성된다. 140 여 점의 유화와 삽화, 설치미술, 영화와 다큐멘터리, 사진, 멀티미디어 영상물 등의 작품이 풍성하게 소개된다.

1. 천재의 탄생 (1904-1926) *Birth of a Genius*

"여섯살 적 나의 꿈은 요리사였다. 일곱 살에는 나폴레옹이 되고 싶었고, 그 후에도 나의 야심은 과대망상적 광기처럼 멈출 줄 모르고 커져만 갔다."



<스튜디오에서 그린 자화상 *Self-Portrait in the Studio*>, c.1919

© Salvador Dalí, Fundació Gala-Salvador Dalí, SACK, 2021

살바도르 달리의 독특한 성격과 세계관에 강한 영향을 끼친 성장 배경과 고향, 가족 관계 등을 살펴본다. 당시 유행하던 미술사조인 인상주의와 입체주의 등을 탐구하며, 다양한 실험을 통해 자신만의 스타일을 찾아가는 과정을 볼 수 있다.

특히 <스튜디오에서 그린 자화상 *Self-Portrait in the Studio*> (c.1919) 작품은 달리가 만 15세에 얻은 첫 스튜디오에서 그린 자화상으로, 세 개의 거울을 곁에 두고 반사된 각도를 계산하며 정확하게 그렸다. 일찍부터 달리는 과학적인 접근법을 시도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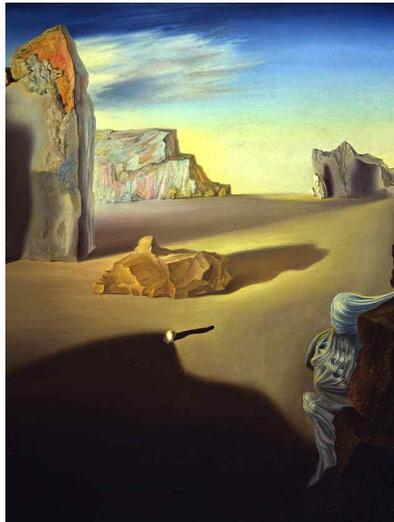
2. 초현실주의: 손으로 그린 꿈 속의 사진들 (1927-1939)

Surrealism: Hand-painted Dream Photographs

“나는 갈라를 아끼며 그녀를 빛나게 만들어 줄 것이고,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이며, 나 자신보다 위할 것이다. 그녀가 없다면 모든 것은 끝일뿐이니.”

살바도르 달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존재 '갈라'. 달리와 운명적인 만남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마치 영화 같았던 러브스토리가 펼쳐진다. 달리의 작품에 갈라가 등장하기 시작하는 초기작 <슈거 스피нк스 *The Sugar Sphinx*> (1933)는 등을 돌린 채 넓은 광야를 바라보는 갈라의 뒷모습이 등장한다. 한편, 갈라의 정면에 놓인 사이프러스 나무 사이로 두 인물과 수레가 보이는데 이는 장 프랑수아 밀레의 <만종> 작품 속 인물을 모티브로 삼은 것이다. 밀레의 그림을 본 순간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여 다양한 해석과 주장을 남긴 달리의 일화는 유명하다.

“초현실주의는 바로 나 자체다.”



<다가오는 밤의 그림자 *The Shades of Night Descending*>, 1931

© Salvador Dalí, Fundació Gala-Salvador Dalí, SACK, 2021

살바도르 달리는 현실과 현실을 초월한 새로운 차원에 대해 탐구한다.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에서 연구한 잠재의식에 강한 충격을 받은 달리는 기이하고 몽환적인 꿈의 세계를 가장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그려내는 화가로 거듭났다. 달리는 현실을 변형시키고 전복하고, 재해석하는 초현실주의의 대표적인 '편집광적 비판(Paranoian Critical Method)' 기법을 제시하고 새로운 화풍의 작품들을 탄생시킨다.

살바도르 달리: Imagination & Reality

달리는 각종 예술가 모임에 참석하고, 성명서를 발표하며 초현실주의의 가장 열렬한 전파자가 됐다. 이번 전시에서는 초현실파 주요 일원이었던 루이스 부뉴엘(Luis Bunuel)과 함께 제작한 초현실주의 영화 <안달루시아의 개 *Un Chien Andalou*> (1929)를 스크리닝한다.

3. 미국: 새로운 기회와 자유 (1940s)

America: New Opportunities, New Freedom

“나는 영화에서 그동안 꿈을 다루던 전통, 곧 흐릿하거나 혼란스럽거나, 아니면 화면을 흔들며 꿈을 처리하던 방식을 반드시 깨트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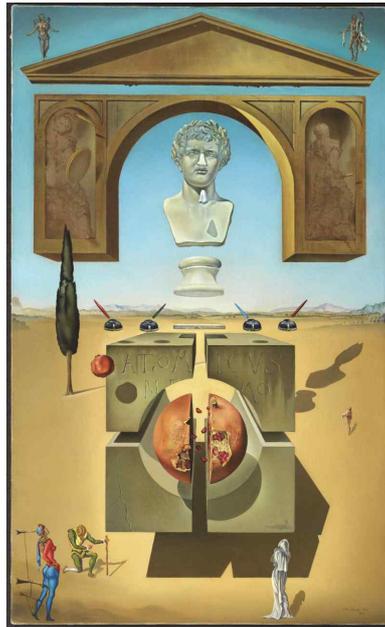
(좌) <볼테르의 흉상 *Bust of Voltaire*>, 1941 © Salvador Dalí, Fundació Gala-Salvador Dalí, SACK, 2021

(우) <임신한 여성이 된 나폴레옹의 코, 독특한 폐허에서 멜랑콜리한 분위기 속 그의 그림자를 따라 걷다 *Napoleon's Nose, Transformed into a Pregnant Woman, Strolling His Shadow with Melancholia amongst Original Ruins*>, 1945 © Salvador Dalí, Fundació Gala-Salvador Dalí, SACK, 2021

해당 섹션에서는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으로 망명한 시기의 대표작들이 소개된다. 달리의 자유분방함과 도발적인 행보, 그리고 예술적 천재성은 대중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이 시기에 달리의 활동 범위는 장르와 매체 구분 없이 확대되었다.

달리는 보는 각도에 따라 이미지를 다르게 인식할 수 있는 '이중 이미지' 기법을 다양한 작품에 적용했다. 이러한 기법이 가장 잘 드러나는 대표작품으로는 <볼테르의 흉상 *Bust of Voltaire*> (1941)과 <임신한 여성이 된 나폴레옹의 코, 독특한 폐허에서 멜랑콜리한 분위기 속 그의 그림자를 따라 걷다 *Napoleon's Nose, Transformed Into a Pregnant Woman, Strolling His Shadow with Melancholia amongst Original Ruins*> (1945) 등이 있다.

작품 제목에서 알 수 있듯 반복적으로 그려진 얼굴은 권력을 상징하는 '나폴레옹'이다. 어린 시절 달리의 꿈이었던 '나폴레옹'에 대한 강한 집착이 드러난다. 부드러운 곡선형 구조물은 스페인의 위대한 건축가 '가우디'에 대한 달리의 존경심을 나타낸다. 화려한 도상들로 장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달리 특유의 적막함과 우울감이 그대로 느껴지는 대표작이다.



<네로의 코 주위의 탈물질화 *Dematerialization Near the Nose of Nero*>, 1947

© Salvador Dalí, Fundació Gala-Salvador Dalí, SACK, 2021

1945년, 히로시마·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은 달리에게 깊은 영향을 끼쳤다. 이후 많은 작품들이 핵과 연관된 사건에서 영감을 받아 그려졌다. 스페인 신비주의적 전통이 가미된 '핵-신비주의(Nuclear Mysticism)'의 단계로 접어들면서 달리는 과학의 진보와 고전의 신비함을 자신만의 예술언어로 녹여낸다. 대표적인 작품 <네로의 코 주위의 탈물질화 *Dematerialization Near the Nose of Nero*> (1947)에서 중력이 소멸된 듯한 풍경 속에 모든 물질의 분열이 일어났음을 볼 수 있다. 달리가 회화 소재로 즐겨 삼았던 도상들인 사이프러스 나무와 신고전주의 건물, 잉크병, 유기적인 형태의 인물 등을 통해 자신의 고유한 스타일을 고수하면서도, 새로운 사상과 사건을 접목시키면서 끊임없이 시도하고 영역을 확장시켜 나갔음을 알 수 있다.

4. 그래픽 아티스트, 이상한 나라에서 온 돈키호테처럼

Graphic Artist, like Don Quichotte from Wonderland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의 돈키호테 석판화는 세기의 석판화 작품이 될 것이다.”

책이나 잡지 커버 디자인에도 관심이 많았던 달리는 1920년 초부터 다양한 삽화 작품을 남겼다. 이번 전시에서는 그 중 4가지 문학 작품인 <돈키호테 데 라만차 *Don Quixote of La Mancha*> (1957), <삼각모자 *Le Tricorne*> (1959), <셰익스피어에 대한 소동 *Much Ado About Shakespeare*> (1968),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Alice's Adventures in Wonderland*> (1969) 삽화 시리즈를 소개한다. 각 삽화는 주어진 주제에 맞게 달리의 상징적인 요소들과 기법, 예술관이 적절히 녹아 있다. 그래픽 아티스트로서 달리의 작업물은 그가 회화뿐 아니라 다양한 장르에서 독창적인 행보와 자유로운 표현 방법을 시도했음을 알 수 있다.

<돈키호테 데 라만차 *Don Quixote of La Mancha*> (1957)

1957년, 살바도르 달리는 프랑스에서 소설 <돈키호테 데 라만차>의 삽화를 의뢰 받는다. 이번 전시에서는 그 중 12개의 삽화를 소개한다. 이 시기에 달리는 처음으로 석판화를 시도한다. 오래된 석회암에 그림을 그려 작업했던 달리는 연필과 물감이 아닌 획기적인 재료와 방식을 찾고자 했다. 잉크 탄을 채운 공기총을 쏘는가 하면, 물감을 묻힌 달팽이를 활용하는 등 우연적인 요소가 어떻게 예상치 못한 결과물을 창조하는지 보여주었다.

<삼각모자 *Le Tricorne*> (1959)

스페인의 사랑 이야기를 원작으로 하는 소설의 프랑스어판 출판을 위해 달리가 제작한 20개의 목판화를 소개한다. 화려한 색채의 나비로 가득한 이 작품들은 인생의 덧없음을 특유의 미스터리하고 아름다운 분위기로 표현했다.

<셰익스피어에 대한 소동 *Much Ado About Shakespeare*> (1968)

15개의 판화 시리즈로 구성된 작품으로, 명작 속 주인공들을 정교하고 생동감 넘치게 그려냈다. 특히, 셰익스피어의 작품 속 가장 유명한 장면들이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면, 왕의 어릿광대 해골 요릭이 햄릿과 대화하는 장면 등을 볼 수 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Alice's Adventures in Wonderland*> (1969)

달리는 사진 석판술과 제판술을 활용한 12개의 과슈와 드라이포인트 기법으로 그린 앨리스의 초상화를 제작한다. 이 삽화 시리즈에서 꿈과 초현실주의, 부조리를 표현했는데 달리의 대표적인 도상인 녹아버린 시계와 줄넘기를 넘는 소녀 등을 다수 찾아볼 수 있다. 동화 속의 '이상한 나라'를 초현실적인 풍경으로 풀어낸 달리의 신비한 자연관과 풍부한 상상력을 확인할 수 있다.

5. 나의 영원한 왕국, 포트이가트 (1950s)

My Forever Kingdom, Portlligat

“르네상스의 고요한 완성미에 견줄 수 있는 이미지로 진정한 삶의 경지에 도달한 유일한 존재가 있다. 바로 내가 기적같은 행운으로 선택한 나의 아내 갈라이다.”

8년간의 미국 생활을 뒤로하고 달리의 고향인 스페인 포트이가트로 돌아간 시기이다. 달리는 어린 시절부터 항상 보아왔던 포트이가트 풍경을 미국에서 탐구한 핵과 신비주의 주제와 접목시켜 새로운 화풍을 제시한다. 달리는 종교적 주제와 핵융합, 핵분열 같은 과학적 개념을 담아냈다. 이를 위해 전통적인 르네상스 회화 기법과 새롭게 발견한 세계관을 융합하여 이색적인 회화를 선보인다.

6. 시각적 환상에 대한 탐구 (1960-1970s)

Optical Illusions

“체계적으로 혼란을 창조해야 더욱 자유로운 사고가 가능해진다.
모순적인 모든 것들이 삶을 창조한다.”



<후안 데 에레라의 “입방체 연구”에 대하여

About the “Speech on the Cubic Form” of Juan de Herrera, c.1960

© Salvador Dalí, Fundació Gala-Salvador Dalí, SACK, 2021

달리는 수학과 과학을 탐구하면서 기존의 착시 기법을 넘어서는 실험에 몰두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편집광적-비판 기법, 이중 형상, 스테레오스코피, 홀로그래피, 4차원의 탐구와 같은 다양한 기법을 적극적으로 사용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스페인 피게레스의 달리 미술관에 설치된 스테레오스코피 체험 공간의 설계를 똑같이 재현하여, 착시효과를 이용해 평면의

살바도르 달리: Imagination & Reality

입체화를 직접 겪어볼 수 있도록 한다. 이 시기의 가장 특징적인 표현방법은 현대 과학과 고전주의 미술의 융합이다. 그러한 시도가 가장 잘 드러나는 대표작으로 <후안 데 에레라의 “입방체 연구”에 대하여 *About the “Speech on the Cubic Form” of Juan de Herrera*> (c.1960)를 꼽을 수 있다. 이 작품은 알파벳 문자로 구성된 정육면체 안에 또 다른 작은 정육면체를 그려 넣었다. 현대 수학의 이론을 풀어내려는 시도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맥락에서 “하늘”과 “못”이라는 요소가 융합되면서 중의적인 의미를 담았다. 또한 허공에 떠다니는 무중력 상태는 “핵 신비주의” 시기에 탄생한 작품에서 자주 등장하는 특징이다.

7. 영원불멸한 거장들의 천국 (1980s)

Following the Path of the Geniuses

“나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이다. 천재들은 죽지 않는다.”



<전사 혹은 ‘로스 엠보자도스’ 미켈란젤로의 로렌조 데 메디치의 무덤에 있는 로렌조 데 메디치 조각상 재해석>
The Warrior or ‘Los Embozados’. Lorenzo de’ Medici after the Tomb of Lorenzo de’ Medici by Michelangelo, c. 1982

© Salvador Dalí, Fundació Gala-Salvador Dalí, SACK, 2021

후기의 달리 작품들은 특히 고전주의 미술의 거장들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 이번 전시에서는 달리가 깊이 존경했던 벨라스케즈부터 미켈란젤로까지 대가들의 영향을 받은 작품을 소개한다.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미켈란젤로의 작품에서 영감을 얻어 재해석한 <전사 혹은 “로스 엠보자도스” 미켈란젤로의 로렌조 메디치의 무덤에 있는 조각상 재해석 *The Warrior or “Los Embozados”. Lorenzo de’ Medici after the Tomb of Lorenzo de’ Medici by Michelangelo*> (c.1982), <지질학적 메아리. 미켈란젤로의 “피에타” 재해석 *Geological Echo, After ‘Pieta’*> (c.1982) 등의 작품을 선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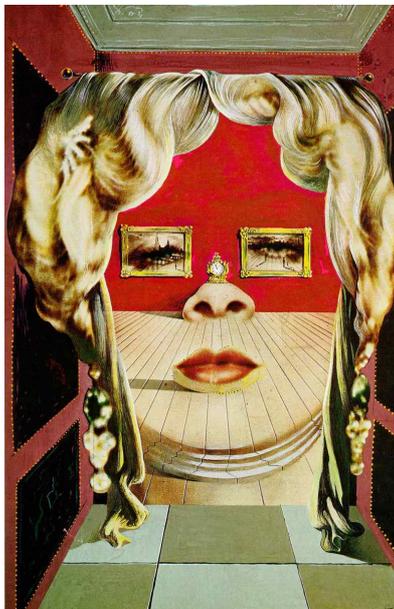
살바도르 달리: Imagination & Reality

이 시기에 완성한 작품들은 위대한 거장들의 유명 작품을 재해석하거나 응용하는 대신, 엄격한 전통적 회화 기법을 적용하여 표현했다. 달리의 천재성과 창조성은 예술사적으로 뛰어난 화가들을 끊임없이 분석하고 계승하고, 동시에 의문을 제기하고 반기를 들며 발전했다. 말년기의 작품들에서는 그들에 대한 깊은 경의를 찾아볼 수 있다.

8. 달리의 꿈속으로 떠나는 여정 *Dreams of Dalí*

미국 플로리다의 달리 미술관에서 특별 제작한 <달리의 꿈 *Dreams of Dalí*> (2016) 예술과 기술의 놀라운 결합으로 펼쳐지는 멀티미디어 영상 작품이다. 달리의 작품 <밀레의 만종에 대한 고고학적 회상 *Archaeological Reminiscence of Millet's "Angelus."*> (1935) 을 중심으로 재해석 된 다양한 상징물 사이를 떠다니듯이 유영하는 초현실적 경험을 선사한다.

9. 메이 웨스트 룸 *Mae West Room*



<Mae West's Face which May be Used as Surrealist Apartment>, 1934-35

© Salvador Dalí, Fundació Gala-Salvador Dalí, SACK, 2021

살바도르 달리의 초현실적인 대형 설치작품이다. 메이 웨스트(Mae West)는 1920년대~30년대 당시 극장과 할리우드에서 관능적인 매력으로 인기를 끌었던 배우이다. 달리는 그녀의 매력을 높이 칭송했고, 신문에 실린 메이 웨스트의 얼굴을 콜라주를 활용해 입체적인 방처럼 탈바꿈시켰다. 달리는 건축가 오스카 투스케츠(Oscar Tusquets)와 협업하여 정확한 설계에 따른 설치작품으로 발전시켰다. 메이 웨스트의 눈과 코, 입이 각각 가구와 인테리어 장식 요소들로 바뀌면서 공감각적인 작품으로 탄생했다. 보는 이의 위치와 각도에 따라

살바도르 달리: Imagination & Reality

서 인테리어 소품과 가구들은 온전한 메이 웨스트의 얼굴로 모여지기도 하고,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흩어지기도 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관람객들이 실제로 전시장을 찾아 달리의 무한한 상상력을 직접 체험해 수 있도록 공식 도면에 따라 작품을 설치하였다.

10. 전설과 함께, 살바도르 달리 *Dali, the Legend*

*“평균 이상의 내가 되기 위해, 모든 사람의 기억 속에 남기 위해,
나는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한다. 예술에서도 삶에서도 모든 것에 있어서 말이다.”*

예술이 인생을 지배해야 한다는 달리의 신념은 그의 삶 전반에서 강하게 느낄 수 있다. 달리는 자기 자신에게 한계점을 두지않고 새로운 매체와 장르에 끊임없이 도전했다. 달리의 폭발적인 창조성과 상상력은 캔버스 밖에서도 무한대로 펼쳐졌다. 수많은 패션 디자이너와 영화 감독, 배우, 가구 디자이너 등 다양한 업종의 사람들과 협업을 이어나갔다. 상업적인 예술가라는 비판적인 견해를 피할 수는 없었지만, 늘 획기적인 이슈를 만들며 틀을 깨는 새로운 도전과 가능성을 실험했던 전설적인 예술가로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살아 숨 쉬고 있다.

(끝)

■ [붙임] 대표 작품 이미지

■ 보도자료 및 고화질 이미지 다운로드

웹하드 바로가기 ▶ <https://only.webhard.co.kr/>

게스트 폴더명: [보도자료] 2022 살바도르 달리전

아이디: gncmedia | 패스워드: 1234